

허송세월 6월국회…요원한 7월국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추경 처리 의사일정 합의 불발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화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등과 관련,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그간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북한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

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눈 말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혁신 창업이 극일 해법”

수석·보좌관회의…“지금껏 하나씩 극복”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克日)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며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享用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폐막을 일주일 남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시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뒤늦게 밝혀진 황교안 5·18 참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전 민주묘지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황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두달여 만으로, 그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 참석에 앞서 비공개 일정으로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황 대표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광주시민 등의 반발로 묘역을 참배하지 못해 이날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주묘지 방문에는 수

행원 2명만 동행했다.

황 대표는 이날 5·18 당시 도청 앞 집회를 주도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박관현 열사와 시민군 대변인이자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은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월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으나, 일부 시민들과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이 황 대표의 방문에 강력하게 항의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앞 평화당도 ‘시끌’

정동영 “탈당그룹 결성 해당 행위”…신경전 고조

민주평화당 당권파와 반당권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탈당 그룹의 행동은 엉당치 않다”며 “당원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위 ‘대안정치연대’라는 틀에 끼리끼리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특히, 손 대표 측 당권파는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제파 간 ‘끝장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고위 구성원 중 반당권파인 유성열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은 지난달부

터 정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에 불참 중이다. 서진희 청년 최고위원은 반당권파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을 향해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직을 명예롭게 마치고 정계은퇴를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안정치 연대는 정동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정숙 대안정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현재 당 지지율은 1.4%로 최하위다”며 “정 대표의 반성과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다. 정 대표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게 무슨 당이냐”…아수라장 바른미래

‘손학규 퇴진 안전 상정 지시’
당권파-퇴진파 고성·몸싸움
권 혁신위원 119 실려가기도

혁신위원회 좌초와 함께 바른미래당의 극한 계파 갈등이 고성과 육탄전을 동반한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손학규 대표와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 계의 ‘퇴진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위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해훈 의원 등 퇴진파가 ‘손학규 대표 퇴진’ 안전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회의 시작과 함께 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라며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유 의원을 압박했다.

이에 퇴진파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연일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고 장기간 단식까지 하는 데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런 무책임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어딴느냐”고 반박했다.

퇴진파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셋업범죄’ (거짓 증거·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범죄)”라며 임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가운데)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은 “당내 유력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은 혁신위 독립성 침해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유승민 전 대표는 ‘손학규 사퇴’가 아니라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물려서지 않았다. 뒤이어 참석자들이 말싸움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게 무슨 당이냐” 등의 고성도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왔다. 특히 5분만에 비공개 회의가 종료된 이후 혁신위원들이 ‘혁신안을 최고위에 상정하기 전에는 나가지 못한다’며 손 대표를 가로막으면서 당권파와 퇴진파 양측 간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단식 중인 권 혁신위원은 “뒷골목 건달도 이렇게는 정치 안 한다”라며 “이게 손학규식 정치이나.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약 10분간 밀고 당기기를 하던 손 대표 측은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권 혁신위원은 바닥에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특히, 손 대표 측 당권파는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제파 간 ‘끝장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병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풍암동 1114번지 토지 : 1500.2㎡(453.811평) 건물 : 6759.99㎡(2044.897평)
감정가 : 65억2천3백5십만원 최저가 : 65억2천3백5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